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역량을 가진 너, 네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랑하는 멘티... 성주에게
성주야, 안녕?

지난 번 추석에 오랜만에 안부전화 고마웠어. 군대를 가기 전에 잠깐 통화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벌써 시간이 이리도 흘렀구나. 그때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색다른 환경과 경험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보고 또 어떤 꿈들을 가졌는지 궁금하구나. 사실 너를 보면 너 때의 나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네가 겪어야 할 여러 도전들에 마음이 쓰이기도 해.

그때가 벌써 2010년이야?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책을 읽었다며 네가 나에게 장문의 독후감 이메일을 보낸 게 말이야. 보통의 독자 편지는 대개 ‘의미 있었다’ ‘큰 도움이 되었다’로 끝나는데, 네 이메일은 그와는 달라서 기억에 남았지. “과연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더 중요할까요? 지금과 같은 스펙시대에 대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작가님은 과연 잘 아실까요?” 뜨끔하기도 하고, 여전히 스펙시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어떠한지를 네 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어.

답장에서 내가 ‘역량중심 이력서’ 파일을 첨부했던 것 기억나지? 이제는 ‘스펙중심 이력서’가 아닌 ‘역량중심 이력서’가 필요한 시기이고, 어떤 학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보다 커뮤니케이션 선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창의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썼었지. 이제 그 역량중심 이력서가 지금은 스펙초월의 한 가지 방법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여러 사기업을 통해 활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참 보람이 느껴져. 그때 역량중심 이력서를 네가 써봤는지 답변을 받진 못했지만, 만약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펜을 꺼내들고 천천히 네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멋진 역량기반 이력서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나눠볼게.

이제는 ‘스펙중심 이력서’가 아닌 ‘역량중심 이력서’가 필요한 시기이고,

어떤 학교,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보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 창의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썼었지.

역량중심 이력서는 그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 기존의 ‘스펙중심’ 이력서가 지원자의 관점에서 어떤 학교를 나왔고, 학점은 얼마며,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를 나열하는 것이었다면, ‘역량중심’ 이력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 즉 기업 인사담당자의 관점에서 만드는 거라는 걸 잊지마. 요즘과 같은 역량을 중시하는 채용문화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바로 ‘묻지마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이야. ‘묻지마 취업’은 곧 ‘상관없이 이력서’를 만들어, 결국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력서로 끝나게 될 거야. 가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홈페이지, 취업한 선배나 채용전문가 등에게 물어보렴. ‘야성’을 강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인화’를 더 중요하게 보는 기업, ‘주인의식’을 내세우는 기업이 있지. 그 각각의 테마가 ‘역량중심 이력서’가 결국에는 보여 줘야 하는 테마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인화’를 강조하는 곳이라면 역량중심 이력서에도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시너지’ ‘융합’ 등의 역량에서 네가 어떤 이야기를 가졌는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방식이야.



‘네 이야기를 말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을 것 같구나. 네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를 생각해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리고 인물들이 해당 사건이나 계기와 관련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역량중심 이력서에 내가 보여줄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를 쉽게 정리해보면, 배경(Context), 행동(Action), 결과(Result)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약자로 CAR라고 하는데, 이를 잊지 않으면 역량중심 이력서를 쓸 때나 면접 때에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배경(Context), 행동(Action), 결과(Result)의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약자로 CAR라고 하는데, 이를 잊지 않으면 역량중심 이력서를 쓸 때나 면접 때에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혹시 ‘화살표청년’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민호라는 친구에 대해 들어봤어? 올해 졸업을 했으니 네게는 선배이겠네. 이 친구에게 배경 또는 계기(Context)는 ‘정류장 버스 노선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겪은 불편함’이었어. 누군기는 지나쳐버리는 그 계기를 화살표청년은 하나의 행동으로 연결했지. 바로 공장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누비며, 코딩해서 특수 제작된 ‘빨간색 화살표’를 버스 노선도마다 붙였지(Action). 나도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해준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화살표청년이 해놓은 거 있지. 그 결과(Result)로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한 개인이 어떤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영감을 주는 사례로 남아 있지.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도 올해 졸업을 하고 구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 과연 스토리가 스펙을 이겼을까 궁금하지? 화살표청년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깜짝 놀랐어. 자신들 회사에도 지원서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결국 화살표청년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됐지. 스토리는 이렇게 회사를 움직일 수도 있어!

이 친구에게 배경 또는 계기(Context)는 ‘정류장 버스 노선도에 방향 표시가 없어 겪은 불편함’이었어.

먼저 사회에 나와 여러 경험을 해보니, 사회가 원하는 인재란 사실 단순한 것 같아.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가치를 도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과거와 같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도 성과를 내는 인재였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 그리고 시장이 포화되고 불확실성이 많아진 시대에는 ‘주어진 일’을 하는 인재보다는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형 인재가 더욱 필요해지게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훈장과도 같은 ‘스펙’은 큰 의미가 없고, 미래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거지. 고객지향이 나 창의성과 같은 역량을 어떤 곳에서든지 활짝 피운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조직과 공간에서도 동일한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주야, 하루하루의 시간,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네가 방문하는 공간들 모두 네게는 놀라운 기회들이야.

성주야, 하루하루의 시간,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네가 방문하는 공간들 모두 네게는 놀라운 기회야. 그 기회 속에서 CAR라는 관점을 기억하면서, 멋진 이야기를 시작해보길 바라. 그때 내가 부탁했지? 술을 먹지 않고도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말 하도록 준비해보라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준비가 되면 부담 없이 또 연락주렴. 그날 네가 들려줄 이야기가 내게는 개봉을 기다리는 어떤 영화보다도 더 기대가 된다. 그럼 우리 또 이야기하자. 안녕. 🍷

너의 영원한 멘토...

정태가